

신 심도기행

두 세계의 경계, 예술로 잇다

전시회를 열며

사진가 이시우

이념

강화의 논은 대몽항쟁을 위해 간척된 것이다. 800여년 동안 강화의 논에서 생산된 쌀에는 최초이자 마지막인 유라시아제국 몽골의 조공체계에 대한 항쟁이념이 서려있다. 강화쌀은 청정미이자 민족정신을 품은 민족미이다. 박현채가 『민족경제론』에서 ‘쌀이 곧 민족’이라고 한 것은 정확한 표현이다.

강화와 김포사이를 흐르는 수로는 조선왕조실록에는 바다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1866년 병인양요이후 프랑스에서 발간된 지도에는 Rivière Salée(히비에흐 짤레: 짠 강)로 표기되었다. 프랑스인 대부분이 조선을 침략한 사실도 모르고 지명하나에 특별한 악의를 담은 것도 아니지만 그 무지, 무심 자체가 제국주의이념을 구성한다. 1867년 이 지도를 입수한 일본은 자신들의 지도에 ‘염하鹽河’라고 적어 넣었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 물을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닌 하천으로 부르고 있다. 염하라는 이름에는 제국주의시대 세력균형체제이념이 내재되어 있다. 염하는 이름이 곧 이념인 것이다.

철조망은 멧돼지의 침입을 막기 위한 울타리일 때는 자연과의 투쟁이념체이다. 이웃과의 영역 분쟁을 위한 경계일 때는 소유권이념체이다. 1차 대전 뤼순전투에서 철조망은 전쟁무기로 등장하여 전쟁이념체가 되었다. 1967년 12월 24일 비무장지대에 처음 설치된 철조망은 베트남 전선에 동시에 설치된 새로운 형태의 콘티엔 철조망이다. 이는 정전협정13항을 위반한 것이었다. 1970년 한강하구에 설치된 철조망은 정전협정5항 민간항행권과 강 접근권을 위반한 것이었다. 정전협정에 항행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이를 통제해 온 “유엔사”가 있다. 배 없는 강, 강 아닌 강으로서의 한강하구와 철조망은 유엔집단안보체제의 창설자에서 위반자·파괴자로 급변한 미국의 일극패권이념체이다.

현대 뇌과학과 분석철학은 공통되게 개념 없는 지각의 불가능성을 말한다. 개념주의의 판정승이다. 낮은 단계의 개념은 이름이고, 높은 단계의 개념은 이념이다.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 그저 몸짓에 불과하던 것이 이름을 불러야지만 꽃이 되는 것처럼, 이름 있는 모든 것은 개념에 의해 구성된 세계이다. 그렇게 구성된 세계는 곧 이념이다. 이념은 관념이 아니다. 물질도 아니다. 관념과 정신, 물질과 실재의 결합이다. 이념의 관념적 측면이 정신이고, 실재적 측면이 물질인 것이다. 마치 정보란 단어가 정신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듯이 이념 역시 그렇다.

장면

강화는 유라시아패권이 한반도에 휘몰아칠 때마다 가장 먼저 파고를 맞는 지정학의 첨단이었다. 강화라는 장소가 패권전쟁과 응전의 이념체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념이 장소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장소에 사건이 겹쳐지면 장면이 된다. 인간만이 가진 경험의 본질은 장면에 있다. 이념의 기본단위는 장면이다.

1869년 러시아 소볼(Sobol)호의 강화도 교전은 짧았지만 지정학적 사건임에도 양요洋擾는 커녕 150여 년간 문제조차 되지 않았다. 러시아가 큰 일없이 돌아갔고 강화유수가 조정에 아예 장계를 올리지 않은 듯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분명 강화라는 장소에 사건이 겹쳐졌지만 장면을 구성하는 데 이르지 못했고 결국 러시아제국주의 이념체로서의 강화경관은 구성되지 않았다. 이는 이념과 체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장소를 기반으로 한 사건이며, 사건을 만드는 사람임을 보여준다. 장소와 사건의 유기적 총체가 장면이다.

통념과 달리 이념은 감각보다 더 풍부하고 정확하게 사실을 드러낸다. 감각지각은 가을 논의 풍경만을 구성하지만, 이념은 쌀 한 톨에서 유라시아패권주의이념을 구성한 수많은 장면을 드러낸다. 이념의 눈으로 보았을 때 감각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 이념과 감각은 대립물이 아니다. 이념이 개념과 실재의 결합이기에 당연히 감각을 포함한다. 이념을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말이 결이다.

결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에서 빗나간 리기논쟁을 비판하며 리理란 사물의 결로 정의한다. 나무결은 목리木理, 물결은 수리水理, 마음결은 심리心理, 숫자의 결은 수리數理, 이론의 결은 논리論理, 윤의 결은 윤리倫理, 도의 결은 도리道理가 된다.

중국어, 일어, 영어에는 없는, 한글의 보통명사 결은 엄밀히 말하면 이념이다. 바람이란 개념을 실제로 경험하여 얻어지는 것이 바람결이다. 살이란 개념을 실제로 경험하여 얻어지는 것이 살결이다.

망월평의 쌀을 감각이념으로서의 찰진 쌀로 구성할 수도 있고, 몽골조공체계에 대한 저항이념으로서의 민족 쌀로 구성할 수도 있다. 강화수로를 감각이념으로서의 물결로 구성할 수도 있고, 세력균형이념으로서의 염하로 구성할 수도 있다. 철조망을 감각이념으로서의 가시쇠줄로 구성할 수도 있고, 미국패권이념으로서의 분단선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이념의 수준과 단계에 따라 같은 사물도 다르게 구성될 수 있지만 그 형식은 언제나 결이다. 장자의 비유를 보자.

포정이 문혜군(文惠君)을 위해 소를 잡고 있었다. 그의 손이 닿는 곳, 어깨가 기대는 곳, 발이 딛는 곳, 무릎이 굽혀지는 곳마다, ‘획’하는 소리와 ‘찍’하는 소리가 울렸다. 칼을 휘두르니 ‘짜’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 모든 소리가 박자에 맞아 마치 『상림(桑林)』의 춤 같았고, 『경수(經首)』 악장에 맞추는 듯했다.

문혜군이 감탄하며 말했다.

“아! 훌륭하구나! 어찌 기술이 이런 경지에 이르렀는가?”

포정이 칼을 내려놓고 대답했다.

“제가 처음 소를 잡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은 소 덩어리뿐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는 소의 부분만이 보였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소를 대합니다. 하늘의 이치에 따라, 큰 틈새를 가르고, 큰 구멍을 통과합니다. 힘줄이나 뼈에 칼이 걸리는 경우는커녕 아주 작은 근육에도 걸리지 않았는데, 하물며 큰 뼈에 걸리겠습니까! 훌륭한 요리사는 매년 칼을 바꾸는데, 그것은 살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요리사는 매달 칼을 바꾸는데, 그것은 뼈를 부러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칼은 19년이나 되었는데, 해체한 소는 수천 마리나 되지만 칼날은 마치 방금 숫돌에서 나온 것처럼 새것 같습니다. 저

뼈마디에는 틈새가 있고, 제 칼날은 두께가 없습니다. 두께 없는 것을 틈새로 집어넣으니, 칼을 놀리는 곳이 넓고 여유로워 반드시 남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9년이 되었는데도 칼날이 방금 솥돌에서 나온 것처럼 새것 같습니다.”

(『장자莊子』 내편 「양생주養生主」, ‘포정해우庖丁解牛’)

포정은 틈새와 결을 따라 칼질을 한다. 처음엔 소의 외형만 보였고, 3년 뒤엔 팔과 다리 등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고, 최후엔 마음으로 틈과 결을 보게 되었다고 했다. 첫 단계가 감각주의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부분을 통해 전체를 보는 분석적 지각주의단계이고, 세 번째 단계는 유기적 전체로서 개념과 경험을 종합해서 보는 이념단계라 할 수 있다.

개념없는 경험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으므로 지각결, 개념결, 이성결, 어느 것도 개념을 전제한다. 포정의 첫 단계 칼질도 이름 단계지만 소라는 개념에 기반한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 포정은 실체로서의 결, 주체로서의 결을 융합한 개념, 즉 가장 높은 단계의 개념인 이념에 기반한다. 포정의 결을 다루는 칼질의 미학은 도의 경지를 보여준다. 포정과 같이 예술가도 결을 직관적으로 다루는 존재이다.

예술

예술가는 결로서 지각하고 결로서 득도한다. 예술가가 세계를 안을 수 있는 것은 이념으로서의 세계이다. 즉 결이다. 결은 세계자체가 아니다. 세계자체는 칸트의 물자체나 지적의 실세계처럼 경험할 수 없다. 이념으로서의 세계는 실체로서의 세계자체의 증상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며, 그 구성의 원리는 이념이다. 이념을 매개로 하기에 사람은 세계를 안을 수 있고, 세계도 사람을 안을 수 있다. 세잔은 여생을 바쳐 생트 빅투아르산을 그리던 어느 날 다음과 같이 일기에 적었다.

‘숲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메를로 폰티는 이를 비유로 인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눈과 숲이 서로를 본다고 하며 이를 ‘살’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는 그의 오판이다. 사람은 숲을 볼 수 있지만 숲 자체는 사람을 볼 수 없다. 그러나 숲 자체가 아닌 이념으로서의 숲일 때, 숲은 사람을 볼 수 있다. 세잔이 숲을 이념으로서의 숲으로 창조했기에 숲은 부여받은 이념만큼 세잔을 품을 수 있다. 사람이 숲을 능동적으로 안는다면 숲은 수동적으로 안는다. 그러나 안는 순간만큼은 상호안기가 이루어진다. 사람과 숲이 전혀 다른 존재라면 상호안기는 불가능하다. 풍력발전기에 태양광이 아무리 내리쬐어도 전기를 생산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전력량을 매개로 하면 풍력과 태양력을 상호비교하고 측정할 수 있다. 전기모터로 풍력블레이드, 수력터빈을 거꾸로 돌릴 수도 있다. 동력의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인 전기는 동일하기에 상호비교와 전환이 가능한 것이다. 상품의 사용가치는 다르지만 화폐를 매개로 한 교환가치는 동일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처럼 이념을 매개로 사람과 숲이 새로이 구성되었다면 상호안기가 가능한 것이다.

당산나무가 마을 사람들을 지켜준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당산나무에 부여한 이념 때문이다. 생물학적으로 나무보다 훨씬 진화한 바퀴벌레는 인간에게 거의 해를 끼치지 않고 유전적으로도 나무보다 월등히 우월함에도 사람을 품어주고 지켜준다고 생각지 않는다. 바퀴벌레에 긍정적 이념을 부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념이 객관적 개념과 다른 점이다. 이념으로서의 세계, 결로서의 세계 안에서 사람과 도구와 자연은 상호안기가 가능하고 안기의 결과로서 상호

생성한다.

예술은 이념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다. 이념을 창조하는 수단이다. 기존이념을 품어 창조된 예술은 그 자체가 새로운 이념이다. 이념은 이해의 도구가 아니라 지배의 도구이다. 사람은 이해하기 위해 공부하지 않는다. 지배하기 위해 공부한다. 사람은 이해한대로 실천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 지배하기 위해 행동한다. 아이에게 사과란 단어를 가르칠 때 왜 그것이 배가 아니라 사과라고 발음해야하는 지를 이해시키지 않는다. 말은 이해를 위해 배우는 게 아니라 사용을 위해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전제품에서 자동차까지 거의 모든 상품은 사용설명서만을 첨부한다. 상품의 구조설명서나 원리설명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상품은 이해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기 때문이다. 도구의 사용법이란 달리 말하면 도구의 지배방법이다. 사용하기란 지배하기이다. 예술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다. 예술은 종종 권력에 저항하는 자유의지로 표현된다. 그러나 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새로운 권력을 만들기 위함이지 저항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예술은 권력을 생산하는 자유의지의 형식이다.

예술가가 작품을 전시하는 것은 바로 그 장소에서 권력의 생산을 시작하는 행위이다. 이는 기존의 권력이 작동하는 관성적 연쇄를 중지시키는 일이다. 연쇄가 중지된 그 지점으로부터 새로운 연쇄가 시작된다. 라캉의 주인기표가 기존기표의 자동적 연쇄를 중지시키고 새로운 연쇄를 시작케 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과 같다. 새로운 권력의 창조는 다름 아닌 정지이다. 이를 우리는 저항이라고만 불러왔다. 그러나 정지는 저항이자 창조이다. 창조는 기존의 연쇄망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연쇄망을 정립하는 것이 아니다. 창조는 피안에 있지 않다. 도피안(到彼岸)의 다리 같은 것도 없다. 현실에서 작동하는 권력이념의 관계망을 정지시키면 그 정지점이 새로운 관계망의 출발점이 된다. 그것이 차안此岸에서의 창조이다.

평화

현실이 지옥인 것은 천국을 꿈꾸기 때문이다. 생활이 고단한 것은 잘사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다. 지옥을 사는 이에게 위로로 건네는 말은 애초 품었던 천국을 다시 새겨보라는 것이다. 애초 세웠던 목표를 다시 상기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천국을 간절히 새길수록 지옥도 강하게 각인된다. 목표가 뚜렷할수록 실패도 명확해진다.

지옥을 사는 이에게 지옥에서 좀 더 잘 사는 방법 대신 지옥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더 필요할지 모른다. 지옥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애초 품었던 천국을 부정하는 것이다. 애초 세웠던 목표를 부정하는 것이다. 천국을 향한 나의 삶을 정지시키고 그 정지마저 정지시키는 것이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부정하는 것이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나는 나다'라는 긍정은 동어반복으로 더 이상의 운동이 없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아니다'라는 부정은 '나는 (내가 아니다)가 아니다'가 되고 이는 '나는 나다'라는 긍정이 된다. 부정은 끝이 없으면서 끝이 있다.

핵을 가진 북한을 이기고자 할수록 핵을 갖지 못한, 가질 수 없는 남한의 절망은 깊어진다. 월등한 재래식 전력을 가진 남한을 이기고자 할수록, 추월하고자 할수록 북한의 절망은 깊어진다. 남북이 서로를 적대하고 위협하는 속에서 각자가 위로를 찾아가는 최선의 방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기이다. 남북이 가까운 장소에 사는 것이 위협이 되는 것은 적대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영국의 핵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은, 또한 북핵은 안되지만 미국핵은 어떻

게든 끌어들이려는 것은, 멀리 있고, 적대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핵과 함께 대륙간탄도발사체계를 갖춘 상태에서는 거리, 장소이념은 무용하다. 더구나 영토의 장소를 바꿀 힘이 우리에게 없다. 그러나 장면을 바꿀 힘은 있다. 적대관계와 적대관계가 만들어내는 충돌은 장소이념이 아닌 장면이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적대자체가 사라지면 상대가 가진 핵무기와 최첨단재래식무기 경쟁은 필요 없어진다.

지옥에서 잘 살아남는 방법보다 천당이 애초 없다는 부정이 지옥으로부터의 탈출방법이듯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보다 승리가 펼칠 이상향에 대한 부정이 전쟁으로부터의 탈출방법이 될 것이다.

적대이념 하에서 핵과 재래무기는 절멸의 재앙이다. 연대이념 하에서 핵과 재래무기는 안전보장의 보증이다. 이재명대통령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고,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했다. 최상책은 적대 결의 연쇄를 정지시키는 일이다. 그리하여 연대 결의 시작되도록 하는 일이다. 평화를 피안에서 찾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 평화는 결의 변환에서 온다.

두 세계의 경계

적대 결의 정지와 연대 결의 시작이란, 경계로서의 결의 스스로 자기변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두 세계의 경계 중 한 세계의 경계에 속한 예술가들이다. 우리는 표면表面이 아닌 계면界面에 있다. 계면은 표면의 겹이다. 경계면에서 두 세계의 표면은 여러 겹으로 섞여 있고 경계가 두 세계를 매개하는 이상 한 세계의 경계에서도 다른 세계의 경계를 경험한다. 나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증상을 통해 상대의 세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 북의 굉음방송은 남의 대북방송이 멈추자 멈추었다. 음파는 남북 육지표면의 계선을 넘어 경계전체에 섞여 있었고 남북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다. 계면에서 남북은 이미 이어져 있었고 섞여 있었다. 남쪽이 아프면 북쪽도 아프고, 북쪽이 울면 남쪽도 울었다. 계면에서의 반성이 계면의 결을 자기변화 시켰다. 계면반성이 계면변화의 동력이다. 이념으로서의 경계, 결로서의 경계에서 자기부정을 결단함으로서 변화의 운동이 시작된다. 부정이란 관성에 맞서 반성하는 일이다.

비무장지대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대부분 머릿속에 중무장지대를 떠올린다. 비무장지대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처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배하기 위해, 통제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것이 관성적 사용법이다. 그러나 비무장지대의 의미는 무장하지 않은 지대이다. 비무장지대를 아무 의심없이 중무장지대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국민대다수가 집단적 정신분열증, 분단병에 걸렸음을 알 수 있다. 비무장지대는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야 라고 외쳤던 문익환목사는 감옥을 살아야 했다.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관성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결의 변환이다.

우리 예술가들은 강화도에서 결의 변환을 시작하려 한다. 결의 혁명을 준비하려 한다. 척추동물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오랜 진화의 역사는 장소인식을 가장 중요한 생존반응으로 체화시켰다. 장소는 생물학적 진화와 이념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세계구성의 우선순위였다. 우리는 강화라는 장소에 새겨진 이념의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장면을 바꾸고자 한다. 관성의 결을 반성의 결로 변환하는 장면의 혁명을 시작하고자 한다.